경기도 내년 예산 42조 편성… 세수 감소에 재정난 가중

올해보다 예산 5.3% 늘었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 가용재원 2조↓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등 미반영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책 기자회견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재정 운용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김대의 기자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안을 올해보다 5.3% 증가한 42조194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로 자체 가용재원이 크게 줄면서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에 나섰다.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법정경비 일부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재정 운용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조1369억원 증가했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사업비다. 반면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344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도는 지방채 2462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가용재원을 3조494억원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이 역시 올해보다 약 1조원(25%) 적은 규모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집행 부진 사업을 조정했으며, 도지사 신규 사업도 편성하지 못했다. 시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 보조율은 대부분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확보한 재원은 민생경제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안전·돌봄 강화, 미래 성장 기반 확보 등 4개 분야에 집중 배분했다.

민생경제 분야에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4361억원,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130억원, 유치원·초중고 급식비 2445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616억원을 편성했다.

취약계층 보호에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3511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35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급여 276억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108억원을 반영했다.

안전·돌봄 분야에는 지방하천 정비 906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65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554억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 416억원을 배정했다.

미래 성장 분야에는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원,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14억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585억원 등을 편성했다.

그러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했음에도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법정경비 일부는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 도는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할 방침이다.

정두석 실장은 "지방채와 기금 차입은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지방세제 구조 개편으로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켜야 할 민생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면서 미래 투자는 이어가겠다"며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조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구미 1산단, 산업·문화 거점 '탈바꿈'

삼성 AI 데이터센터 건립
첨단산업 연구시설 확충


지난 5일 구미시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착공식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구미 국가제1산업단지가 삼성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첨단산업 연구시설 확충,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재편된다.

구미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일 구미1공장 부지에서 60M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착공했다. 총 6조원을 투입해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정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삼성의 19조원 투자 계획과 연계된 사업이다.

구미시는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로봇 양산 라인과 AI 드리븐 팩토리 등 후속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260억원이 투입된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개소식이 예정돼 있다.

공장 해외 이전 이후 20년간 방치된 방림부지에는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396억 원),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검증 테스트베드(400억 원), 첨단 소재·부품 혁신 파운데이션 플랫폼(7,100억 원) 등 연구시설이 들어선다. KTR 경북거점 및 BaaS 시험실증센터(272억 원), 디자인 AI 인프라를 갖춘 HAI센터(180억 원)도 추진된다.

문화·재생 분야에는 총 7,745억 원이 투입된다. 문화산단 프로젝트 2,821억 원과 대규모 재생사업 4,924억 원으로, 방림부지 공장 8개 동은 원형을 보존한 청년 친화형 랜드마크(322억 원)로 조성한다. 창고 6개 동은 시립갤러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구미(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부산 이전기관, 이웃사랑 희망상자 제작

취약계층 1000세대에 생필품 전달

부산시와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이 취약계층 1000세대에 전달할 생필품 꾸러미를 직접 제작한다.

부산시는 오는 19일까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혁신도시 13개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희망상자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한다.

행사는 17일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18일 남구 감만종합사회복지관, 19일 영도구 상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희망상자는 즉석밥과 라면, 세제 등 생필품 16종으로 구성되며 취약계층 10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물품 구입에는 이전공공기관이 조성한 공동성금 4650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부산시는 행사 운영을 위한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13개 이전공공기관은 올해 총 5650만원 규모의 공동성금을 조성해 상·하반기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겨울철 축산재해 대응체계 가동

내년 3월 15일까지 상황팀 운영
상황관리·기술지원·신속대응반

경남도는 대설·한파와 축사 화재에 대비해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축산재해대책 상황팀을 운영한다. 상황팀은 상황관리반·기술 지원반·신속대응반 등 3개 반, 19명으로 구성했다.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상황팀이 시군과 지역축협, 축산단체 등에 기상정보를 전파하고 대응에 나선다.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 상황을 파악해 응급 복구 인력과 재난복구비를 지원하고, 가축재해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2~27일 노후 축사와 가설건축물 축사, 과거 피해농가 등 275개소의 전기설비와 버팀목 등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현장 지도·점검을 이어가고, 소방부서와 협력해 노후 전기설비 점검과 화재 예방요령 안내도 진행한다.

2027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는 2026년보다 50억원 늘어난 1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에도 1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도는 다음달 시군·축종별 단체·농축협과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27년 1월~2027년 2월에는 돼지 1000두, 닭 3000수, 오리 2000수 이상 사육농가 등 재해에 취약한 농가를 중심으로 시설을 정기 점검할 예정이다.

/경남=박현철 기자 metrobusan88@

경북도, 22개 시군 맞춤형 전략사업 발굴

2028년 국비사업 확보 나서

경북도가 22개 시·군의 산업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2028년 신규 국비사업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도는 1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경상북도 27년 전략사업 기획 시·군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22개 시·군과 지역대학, 혁신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학산업국 주요 정책과 추진사업을 공유하고, K-과학자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산학협력단과 혁신기관도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규 전략사업을 제안했다.

경북도는 올해 기획전문가 10개 그룹을 구성하고 과제회의 25회, 성과보고회 3회를 열어 전략사업 10건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5건은 중앙부처에 국비 건의 과제로 제안했다.

전략사업 분야는 농업AX(인공지능 전환), 스마트농업, 반도체·제조 AX, 재활의료 AX, 콘텐츠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는 지역별 산업기술 수요와 사업화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시·군별 전략과제를 구체화해 2028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2개 시·군이 각기 다른 산업 여건과 발전 잠재력을 가진 만큼 모든 시·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지역 이모저모

김해시

동북아 물류플랫폼 정책 세미나

김해시는 16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 가야홀에서 '2026 김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물류거점 조성 방향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로 6회째인 세미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에 대응하고 김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원과 학계·연구기관, 물류·항만 분야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평택시

日 마쓰야마시와 공무원 교류

평택시가 일본 우호 도시인 에히메현 마쓰야마시와 공무원 교류를 확대하며 실무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에 나섰다.

평택시는 마쓰야마시 공무원 축구단 대표단 13명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평택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우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상호 방문 프로그램으로, 공무원 간 친선경기와 행정 경험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평택을 찾은 마쓰야마시 대표단은 지난 13일 평택시청에서 최원용 시장을 만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평택(경기)=김예원 기자 ywon@

산청군

고교 졸업까지 성장지원 확대

산청군은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돕는 '산청형 출생·보육·교육 생애주기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현재 8700만원 수준인 아동 1인당 누적 지원액을 2026~2028년 1억7000만원, 2029~2030년 2억원, 2031~2032년 최대 2억30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각 금액은 기존 지원과 이전 단계 지원을 합한 총액이다.

1단계에는 산청형 학생성장 지원사업을 신설해 초등학생에게 월 6만원, 중학생에게 월 9만원, 고등학생에게 월 1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청(경남)=이정민 기자 metrobusan6@

해남군

두륜산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해남군은 오는 12월까지 두륜산 도립공원 지정 탐방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정비구간은 북미륵암과 노승봉 구간을 비롯해 길 정원 내 물소리길, 오소재~오심재, 출입구(매표소) 산책로 구간이다.

두륜산을 찾는 탐방객의 주요 노선으로, 겨울철 경사가 급한 장소 위주로 탐방객들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정비가 실시된다.

주요 정비사항은 돌계단 및 데크계단을 설치하고, 손잡이 레일과 미끄럼 방지장치, 야자매트 등 설치와 노승봉 구간 낙석 정리 등이 시행된다.

/해남(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